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갈등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이구* · 오종문** · 조건식***

• 요 약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였지만, 양국 간의 군사 갈등으로 교역은 크게 감소했다. 특히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군사적 갈등으로 인해 두 나라의 관계는 긴장 상태에 빠졌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 갈등이 교역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 갈등을 독립변수로, 교역을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 갈등이 증가하면 교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국가 간의 군사적 위협은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군사적 긴장 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역이 감소해 경제 성장 잠재력이 저해된다는 점에서, 평화와 안정이 경제적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무역 경로가 차단되고, 투자가 줄어들며,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가 하락한다. 이는 두 국가 모두에게 경제적 손해와 정치적 불신감을 초래한다. 따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는 경제 번영과 정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사 갈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러시아, 우크라이나, 교역, 군사갈등, 평화

I. 서론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선언했다. 이전에 소련의 위성 국가였

*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동북아학박사 : 주저자

** 연세대학교 통일클러스터센터 연구위원, 북한학박사 : 공동저자

*** 한라대학교 석좌교수(동북아경제연구원 원장), 정치학박사 : 교신저자

※ 유의한 심사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분들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던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와 국가 대 국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비록 독립을 이루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추운 겨울을 버틸 만한 에너지가 부족했다. 그러나 소련 시절 보유했던 핵무기가 있었다. 이 핵무기는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교환을 성사시켰는데, 바로 자원과 군사력을 맞바꾼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는 대신 핵무기를 포기했다. 이를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초기에는 러시아와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투폴레프 Tu-160 등의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함으로써 채무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환은 두 나라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역은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1990년대 초반의 교역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교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1994년 50.4%, 1996년 47.1%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1994년 10.2%, 1996년 11.7%를 기록하면서 양국 간의 교역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두 국가 간의 군사적인 갈등 상황이 지속 되면서, 2014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교역은 21.6%를 기록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3.0%를 기록했다.¹⁾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경제 다각화를 시도하면서 시장을 확대하려 했다. 우크라이나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거래를 촉진하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러시아와의 교역 비중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오히려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 증가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성에서 벗어나려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였지만, 러시아와의 대립이 커지고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면서 교역은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쪽에서의 군사적 갈등으로 인해 두 나라의 관계는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2014년에 발발한 돈바스 전쟁은 2022년 2월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침공의 서막이었다. 두 국가 간의 외교적인 대화와 교역의 재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어 보였지만, 군사적 갈등은 지속 되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갈등이 발생하면서 교역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사갈등이 교역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실증적

1) "International Trade 1870~2014 (v4.0)", 『Correlates of War』, <https://correlatesofwar.org/data-sets/bilateral-trade/>(검색일: 2023.12.04).

으로 분석해 보려 한다. 두 국가 간에 군사적 긴장 수준이 높아지면, 교역의 감소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평화와 안정이 경제적 번영을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실증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려 한다.

II.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상호의존과 평화에 관한 이론적 검토

진 세계적으로 통신과 교통 등이 발전하면서 상호연결은 증가하고 있다. 국가 간의 상호 연결의 증대로 사람들 간의 접촉은 활발해졌고 교역은 증가했다. 교역이 증가하게 되면 상호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 상호의존은 돈, 상품, 사람, 정보의 흐름으로 인한 국제적인 거래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다.²⁾ 하지만 국가별 상호의존 관계에서는 이익과 비용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국가별 경제적인 규모와 정치적인 관계 등에 따라서 교역으로 인한 상호이익과 비용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 상호의존의 이익과 비용의 특성을 보면, 국가간 상호의존의 이익은 제로섬(zero-sum) 그리고 논제로섬(nonzero-sum)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제로섬 상황은 상대방의 손해가 나의 이익이 되거나 나의 손해가 상대방의 이익이 될 수 있다. 논제로섬에서 포지티브섬(positive-sum) 상황은 모두가 이익을 얻으며, 네거티브섬(negative-sum)에서는 모두가 잃게 된다. 파이를 나누는 것은 제로섬, 더 큰 파이를 굽는 것은 포지티브섬이다. 그리고 파이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은 네거티브섬이다. 상호의존에는 제로섬과 논제로섬의 양면이 존재한다.³⁾ 특히 포지티브섬은 국제무역이 상호 혜택을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호 혜택은 무역을 통해서 모든 국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지티브섬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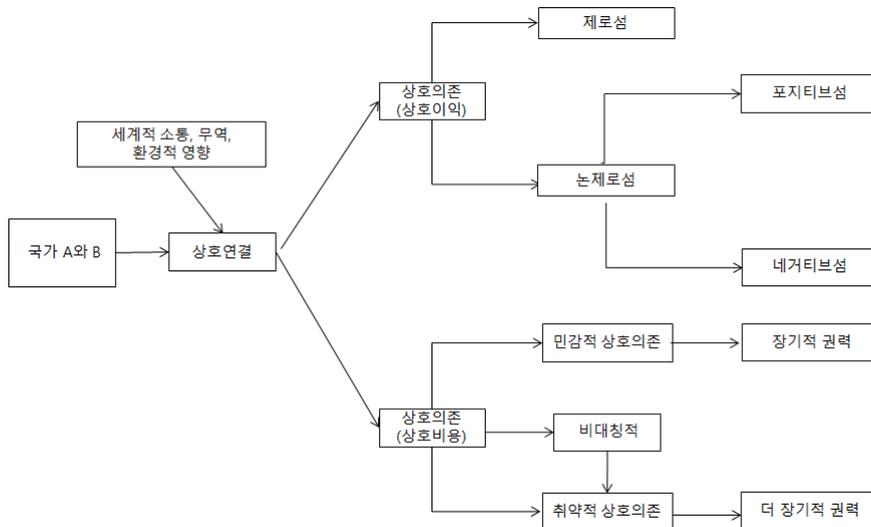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상호 의존성을 공동의 이익과 포지티브섬 상황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익의 불균등과 상대적인 이익의 배분에 대한 갈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한 국가가 이익을 얻으면 다른 국가는 손실을 보게 된다. 제로섬 상황이 발생한다. 교역을 통해 상호의존이 형성되더라도 상대적인 이익의 차이는 갈등을 받

2)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Glenview, IL: Pearson, 2011, p.7.

3) Joseph S. Nye, J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HEORY AND HISTOTY 7th Edition*, New York: Pearson Education, 2009, p.210.

생시킬 수 있다.

상호 의존성의 비용으로는 ‘민감성’(sensitivity) 또는 ‘취약성’(vulnerability)이 발생한다. ‘민감성’은 정치적인 이유로 교류가 단절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경제 교류를 통한 한 국가의 경제 변화가 다른 국가의 정부 또는 사회에 특별한(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⁴⁾ 여기에서 ‘취약성’은 상호 의존성이 단절 혹은 제한했을 때 영향을 받게 되는 손해(damage)를 의미한다.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교역 관계가 중단되면 두 국가 모두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손해는 크게 발생한다. 하지만 ‘취약성’은 의존성의 크기 및 국내·외 대체물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⁶⁾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단절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취약적인 상호의존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교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 할 것이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의 교역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무역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한 무역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1〉 상호의존의 이익과 비용의 특성⁷⁾

4) 야마모토 요시노부, 『국제적 상호의존: 국제레짐과 거버넌스의 정치경제학』, 서울: 논형, 2014, p.123.

5) 위의 논문, pp.121-122.

6) 위의 논문, 2014, p.122.

7) Joseph S. Nye, J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HEORY AND HISTOTY 7th Edition*, New York: Pearson Education, 2009, p.210.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상호의존의 비대칭성을 활용하여 한 국가의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두 국가가 상호의존적이기는 하지만 상대방 국가보다 덜 의존적인 국가는 권력의 자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호의존은 대등한 의존관계의 상황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국가 간 완벽한 대칭관계는 드물기 때문이다. 물론 한 국가에 완전히 의존적이고 상대 국가에 전혀 의존적이지 않은 완전한 비대칭(imbalance)의 경우도 드물다. 비대칭적인 의존은 상대방 국가를 경제적으로 의존시킬 수 있기에 국제정치에서 권력의 원천은 상호의존의 비대칭(asymmetry)에 있으며 이를 관리 하는데 있다.⁸⁾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가들은 다른 국가와 비대칭적인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상호의존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양한 국가와의 교역증진을 통해 비대칭적인 상호의존을 줄여나가야 한다.

국가들 간의 무역이 증가하면서 국제무역은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국제무역의 발전은 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제무역의 증가는 국가들의 상대적인 이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인 이익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얻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는 협력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높다. 이는 군사갈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를 보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역과 군사갈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경제, 정치, 제3국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경제와 관련된 연구로 윤성욱(2014)⁹⁾은 러시아와 유럽연합(EU)은 EU 에너지 시장 자유화 및 통합을 위한 에너지 패키지 도입과 이에 따른 가스프롬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EU의 동부 파트너십 계획과 러시아의 유라시안 연합 계획의 대립, 비자 면제 협정 체결에 대한 이견 등으로 양측 관계에 있어 갈등 양상이 대두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경제와 에너지 그리고 교역 등 정치적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기본적인 협력의 틀은 지속 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협력은 두 국가 간의 군사적인 갈등을 잠재우기에는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상원(2007)¹⁰⁾

8) 조지프 나이,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5, p.273.

9) 윤성욱, “제3기 푸틴 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EU 관계 변화: 협력에서 갈등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7권 4호, 국제지역연구센터, 2014. pp.69-96.

은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유라시아 패권 장악을 위해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으로 일정 부분 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향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독립과 탈 러시아를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원등의 교역활동이 실제로 정치적 갈등의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유신(2007)¹¹⁾은 2006년 발생한 가스분쟁은 정치적 목적으로 가스자원을 무기화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친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총리 야누코비치도 러시아와의 가스협상을 막지 못한 점을 들어 정치적인 문제보다 에너지 관련 교역과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은 정치적인 요소보다 경제적인 요소가 더 우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홍완석(2007)¹²⁾은 우크라이나는 국가 주권의 영구확보와 자유시장경제체제 확충을 위하여 서방과의 관계를 동경하지만 지정학적 현실은 우크라이나의 산업 및 무역구조가 러시아에 의존적인 상황이며 우크라이나의 서방에 대한 관계가 강화될수록 우크라이나는 경제적 보복 이상의 안보적 위협에 직면할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리아쇼크와 모이젠코(Ya. O. Liashok와 K. Ye. Moiseienko, 2018)는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 후 재정이 부족하여 경제의 기능과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연방 간의 양자 간 투자 협력의 특징을 파악한 결과 부문별 전문화가 강화되면서 상호 투자 협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¹³⁾ 양국 간의 경제협력의 감소는 오히려 군사갈등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이종문(2023)¹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실질 GDP가 4.8% 감소했으며, 2023년 2분기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으로

10) 김상원,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 에너지 안보전략”, 『중소연구』, 제31권 2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07, pp.185-210.

11) 이유신, “2006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분쟁: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인가?”, 『중소연구』, 제31권 1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07, pp.165-186.

12) 홍완석, “탈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와 유라시아 정치경제안보질서”, 『국제지역연구』, 제11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7, pp.375-402.

13) Liashok, Ya. O. and K. Ye. Moiseienko, *Dynamics of bilateral investments of Ukraine and Russian Federation: before and after the beginning of the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 Polissia: Scientific bulletin, Vol. 13, Issue 1, Jan 2023, pp.70-76.

14) 이종문,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경제의 충격”, 『슬라브학보』, 제38권 4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23, pp.643-677.

예상하며, 러시아의 경제 성장 잠재력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장기적인 저성장의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IMF는 2024년 러시아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IMF는 미국 경제는 올해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서방의 제재가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지원(2022)¹⁵⁾은 단기적으로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는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중간재와 장비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주어 제조업발전과 신산업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러시아 정부는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입 대체화전략 및 상품 공급선의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치와 관련한 연구로 박정호(2012)¹⁶⁾는 탈냉전 시기 이후 흑해 지역은 협력과 경쟁의 공간으로 변모되어가고 있으며 안보확립과 경제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역사적 연고성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며 미국과 EU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이 지역내의 안보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며 지역 협력에서 딜레마로 작용할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용환(2007)¹⁷⁾은 국제관계가 이념보다 실리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국제정세 다극화와 군사적 해결을 지향하는 추세가 공존, 갈등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사안보차원의 전략을 투사하는 주요 공간이며 흑해-카스피해-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러시아 남부벨트에서의 러시아와 서방세계의 세력경쟁은 러시아의 국가안보위협 수준의 강도에 따라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정은상(2023)¹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부식을 가속화하며 다지역적 다극질서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비정형적 대립과 협력의 신냉전 구도를 강화하는 한편, 위상이 강화된 지정학적 중간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성훈(2023)¹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를 세계 질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패권 전쟁이며, 안보 딜레마 심화로 인한 주변국 간의 전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남북

15) 박지원, “서방의 對러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반제재정책: 러시아 상품 공급망 관점의 분석”, 『중소연구』, 제47권 2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22, pp.269-300.

16) 박정호, “흑해 지역 협력의 딜레마: 흑해 지역 협력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 비교”, 『중소연구』, 제36권 2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12, pp.185-213.

17) 김용환, “러시아의 군사안보전략과 우크라이나”, 『국제지역연구』, 제13권 2호,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pp.47-72.

18) 정은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경제와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6권 3호,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23, pp.155-182.

19) 제성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와 한반도: 세계질서, 안보딜레마, 정체성”, 『슬라브학보』, 제38권 4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23, pp.679-711.

간 및 국가 차원의 통합된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제3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에릭 브랜들(Erik Braundhl, al, 2023)은²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제3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제품 네트워크 기반 분석을 실시 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수출하는 가장 중요한 제품을 파악한 후 포괄적인 노출 지표를 적용하고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제3국의 의존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철과 농산물을, 러시아는 에너지원, 원자재, 철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특히 구 소련 및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수입품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 이들 국가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카멜리아와 그레티타(Camelia Negri and Gheorghita Dincă, 2023)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이 팬데믹 이후 상황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 특히 EU 국가의 경제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파악했다. 패널 데이터 계량경제학 기법과 함께 차이점 분석 방법론을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 국방 및 군사비 지출, 인플레이션, 무역 개방성 부족, 에너지 의존도 증가가 유럽 경제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¹⁾

장덕준(2023)²²⁾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중국 간의 상호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었지만, 양자 관계의 비대칭성도 크게 증대되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 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수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 군사적인 무기도 우회적으로 제공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관계는 ‘동맹’ 또는 ‘준동맹’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실용주의적 협력’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갈등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은 그 중요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연구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 최근 두 국가 간에 전쟁으로 교역을 통한 균형적인 관계가 보다 절실하게 느껴진다. 이에 본 연구는 군사갈등의 발생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평화가 주는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20) Erik Braun, Emese Braun, András Gyimesi, Zita Iloskics, Tamás Sebestyén, *Exposure to trade disruptions in case of the Russia-Ukraine conflict: A product network approach*, World Economy, Vol. 46, Issue 10, Oct 2023, pp.2950-2982.

21) Camelia Negri and Gheorghita Dincă, *Russia's military conflict against Ukraine and its impact on the European Union's wealth. Can good governance counteract the effects of the war?*, Frontiers in Environmental Science, Vol. 11, Jul 2023, pp.1-16.

22) 장덕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중 관계의 전개”, 『중소연구』, 제47권 2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23, pp. 157-199.

Ⅲ. 연구방법

1. 모형 설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갈등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다. 두 국가 간의 군사갈등을 독립변수 교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군사갈등이 발생하면 교역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자와 현실주의자는 비슷하게 보고 있다.²³⁾ 르우베니(Reuveny)는 분쟁이 발생하면 수입과 수출이 모두 영향을 받아서 감소하다고 설명한다.²⁴⁾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군사갈등의 연구 자료는 전쟁의 상관관계(Correlates of War, COW)의 *Dyadic MID Data 4.02*²⁵⁾를 활용한다. COW는 국제 관계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의 수집, 보급 및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교역 자료는 International Trade, 1870~2014 (v4.0)을 갈등 자료는 Dyadic MID Data 4.02를 사용하여 연도별 자료를 취합한다. 그런데 냉전시대에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에 포함된 국가여서 1990년도 이후의 자료를 통해서 두 국가의 교역과 군사갈등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COW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역과 관련된 자료를 1994년도부터 제공하고, 군사적 갈등에 대한 자료를 2014년도 까지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 취합의 문제로 199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를 기준으로 교역과 군사갈등 자료를 집계하여 분석한다. 아래는 본 연구의 모형이다.

모형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군사갈등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y_{ik,t} = \alpha + \beta x_{ik,t} + \gamma x_{ik,t} + \epsilon_{ik,t}$$

$$y_{ur,t} = \text{러시아(i)와 우크라이나(k)의 교역}$$

$$\beta x_{ur,t} = \text{러시아(i)와 우크라이나(k)의 군사갈등}$$

23) Goenner, Cullen F., "Simultaneity between Trade and Conflict Endogenous Instruments of Mass Destruc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8, no. 5, 2011.; 오종문,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와 군사분쟁의 상호인과성 분석",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Keshk, Omar M. G. and Brian M. Pollins and Rafael Reuveny, "Trade still follows the flag: The Primacy of Politics in a Simultaneous Model of Interdependence and Armed Conflict",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6, no. 44.; Levy, J. S. and Katherine Barbieri, "Trading with the Enemy During Wartime", *Security Studies*, vol. 13, no. 3, 2004, p.43.

24) Reuveny, Rafael, "Bilateral Import, Export, and conflict/Cooperation Simultaneit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5, no. 1, 2001, pp.136-137.

25) "Correlates of War", *Dyadic MID Data 4.02*, <https://correlatesofwar.org/data-sets/mids/>(검색일: 2023.12.04).

γ_{kt} = 러시아(i)와 우크라이나(k)를 분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벡터인 군사갈등(t-1), 상대적 국력, 1인당 GDP(로그), 철강을 통제변수로 두고 분석한다.

$\epsilon_{ur,t}$ = 오차항

2. 연구 자료

1) 교역

교역은 두 국가 간의 교역을 그 나라의 총 교역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서 나타낸다. 예를 들어 i 국이 러시아 k 국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면, 두 국가 간의 교역에서 러시아의 총 교역을 나눈 후 100을 곱하면 그 비중을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온 값은 0과 100 사이의 값을 갖는다. 0에 가까울수록 교역비중이 낮으며 100에 가까울수록 교역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역비중이 한 국가에 집중되어 높게 나올수록 그 국가는 경제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교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두 국가 간에 군사분쟁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교역을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한다. 이를 위한 연구자료는 Correlates of War. “International Trade, 1870~2014 (v4.0)을 활용한다.²⁶⁾

$$\text{교역 } ik = \frac{\text{두 국가간 교역 } ik}{\text{총교역 } i} \times 100 \quad \text{교역 } ki = \frac{\text{두 국가간 교역 } ki}{\text{총교역 } k} \times 100$$

2) 군사갈등

군사갈등은 이분변수(dichotomous variable)로 측정하여 종속변수를 0과 1로 나타낸다. 이를 위해 dyadic_mid_4.02에 있는 변수 중에 군사갈등의 수준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면(No militarized action=1) 0으로 코딩하며, 무력의 위협(threat to use of force=2), 시위(display of force=3), 사용(use of force=4) 또는 전쟁(war=5) 중 어느 하나가 발생 할 경우 1로 코딩한다. 무력의 위협이 군사갈등으로 이어진 사례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무력 충돌 발생을 들 수 있다. 환엔다오 해역에서 필리핀 해경

26) 위의 기사.

선 1척이 필리핀 어선 1척에게 식량과 연료를 보급하며 주변을 순찰하다가, 중국의 해경선 4척과 중국 선박 10척의 위협을 받았다. 필리핀 해경선은 임무도 저지 당하면서 물대포 공격을 받아 난간과 지붕이 파손되는 피해도 보게 되었다.²⁷⁾ 이렇게 무력의 위협은 군사갈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군사갈등으로 포함하여 1로 코딩을 한다.

3) 통제변수

(1) 1인당 GDP(로그)

1인당 GDP(로그)는 한 국가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개인의 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그 나라의 실질적인 경제력을 평가하는 데 국내총생산(GDP) 보다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인당 GDP의 증가는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양이 많아지게 된다. 이에 1인당 GDP의 증가는 교역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GDP(로그)는 국가통계포털(KOSIS)²⁸⁾의 자료를 활용하며, 계수의 값이 다른 변수에 비하여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로그를 취하여 안정적으로 취합한다.

(2) 상대적 국력

상대적 국력은 다른 국가와의 국력을 비교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한다.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는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증대하려 할 것이다. 상대적 국력(Composite Indicator of National Capability, CINC)은 국가의 종합적인 군사적, 경제적, 인구학적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국가의 상대적인 힘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지표는 군사 지출(military expenditure), 군인(military personnel), 에너지 소비(energy consumption), 철강 생산(iron and steel production), 도시 인구(urban population), 총 인구(total population) 등 여섯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값을 도출했다. 이 지표는 국가의 종합적인 군사적, 경제적, 인구학적 능력을 나타내며, 국가의 상대적인 힘을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²⁹⁾ 그런데 상대적 국력은 2007년도까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199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추세를 활용한

27) 홍순도, “남중국해에서 또 중국-필리핀 무력 충돌”,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430010017269>(검색일: 2024.05.19).

28) KOSIS, “1인당 국민총소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902&conn_path=I3(검색일: 2023.12.04).

29)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v6.0)”, 『Correlates of War』, <https://correlatesofwar.org/data-sets/national-material-capabilities/>(검색일: 2023.12.04).

미래 예측값³⁰⁾을 활용해서 값을 도출한다.

(3) 철강

철강 변수는 상대적 국력의 지표 중 하나인 철강 생산(iron and steel production) 변수를 활용하여 취합했다. 철강은 전쟁에서 무기를 만들고 건축과 제품을 생산하는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철강 변수를 취합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철강 생산의 변화에 따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는지 살펴본다. 철강과 관련된 자료는 상대적 국력의 철강 생산 자료를 참고하여 집계한다.³¹⁾

IV. 군사갈등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변수 검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갈등이 교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초 통계와 변수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표 1> 군사갈등과 교역 기초 통계를 보면, 교역은 최소값 1.094에서 최대값은 3.921로 나타난 것은 로그를 취해서 나타냈기 때문이다. 교역의 평균값은 2.67로 최소값과 최대값의 평균값인 2.508보다 약간 높다. 교역 변수를 로그로 변환한 값이 아닌 두 국가 간의 실질적인 교역의 비중을 통해서 교역의 패턴을 살펴보면, 경제적 관계의 변화를 더 명확하게 살펴 볼 수 있다.

<표 1> 군사갈등과 교역 기초 통계

변수	개체수	평균값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교역(로그)	42	2.670	0.830	1.094	3.921
군사갈등	42	0.286	0.457	0.000	1.000

30) 미래 예측값은 엑셀의 'FORECAST' 함수[=FORECAST(x, known_y's, known_x's), x: 예측하려는 2008년도 시점, known_y's: 1994년도부터 2007년도의 상대적 국력 값, known_x's: 1994년도부터 2007년도의 시기]]을 활용해서 집계한다. 이를 활용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199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상대적 국력 기준 값들 사이의 선형 추세를 기반으로 패턴이나 경향성을 분석하여 미래 값을 예측 할 수 있다.

31)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v6.0)", 『Correlates of War』, <https://correlatesofwar.org/data-sets/national-material-capabilities/>(검색일: 2023.12.04).

변수	개체수	평균값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군사갈등(t-1)	40	0.250	0.439	0.000	1.000
상대적 국력	42	0.028	0.017	0.010	0.065
1인당 gdp(로그)	42	7,875	0,898	6,522	9,628
철강	42	10.801	0.396	10.013	11.421

〈그림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교역 변화(1994~2014)를 보면, 교역의 패턴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두 국가 간의 교역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비슷해 교역의 상관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교역에 의존하는 비중은 1994년 50.4%에서 2014년 21.6%까지 감소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1994년 10.2%에서 2014년 3.0%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³²⁾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경제 다각화를 시도하면서 시장을 확대하려 했다. 우크라이나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거래를 촉진하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유럽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러시아와의 교역 비중이 줄어들었다.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이 증가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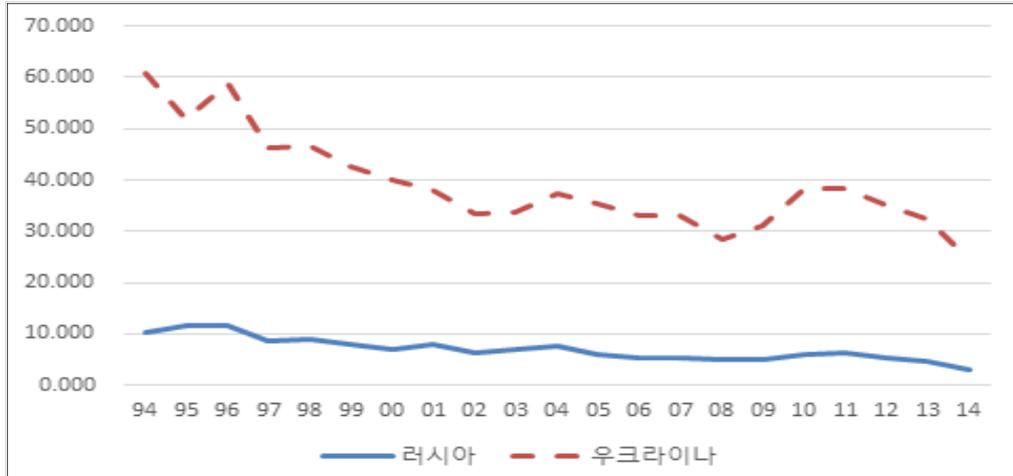
2012년의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이집트, 인도, 터키로 15.5%의 비중을 차지했다³³⁾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군사적-정치적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투자 매력도와 투자 규모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³⁴⁾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였지만, 러시아와의 대립이 커지고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면서 교역은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연도	94	96	98	00	02	04	06	08	10	11	12	13	14
우크라이나	50.4	47.1	37.7	33.2	27.3	29.6	27.7	23.4	32.3	32.2	29.6	27.8	21.6
러시아	10.2	11.7	9.0	6.9	6.2	7.7	5.4	4.9	6.1	6.1	5.4	4.6	3.0

32) “International Trade 1870–2014 (v4.0)”, 『Correlates of War』, <https://correlatesofwar.org/data-sets/bilateral-trade/>(검색일: 2023.12.04).

33) “International Trade 1870–2014 (v4.0)”, 『Correlates of War』, <https://correlatesofwar.org/data-sets/bilateral-trade/>(검색일: 2023.12.04).

34) Liashok, Ya. O. and K. Ye. Moiseienko, *Dynamics of bilateral investments of Ukraine and Russian Federation: before and after the beginning of the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 Polissia: Scientific bulletin, Vol. 13, Issue 1, Jan 2023, pp.70–76.



〈그림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역 변화(1994~2014)³⁵⁾

군사갈등은 최소값 0에서 최대값 1의 값이 도출된 것은 이분 변수이기 때문이다. 변수 중에 철강이 최소값 10.013에서 최대값 11.421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갈등(1994~2014)을 보면, 199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7번의 군사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시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교역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던 시기이다. 교역의 감소와 함께 군사갈등도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표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갈등(1994~2014)³⁶⁾

국가		군사갈등 시작			군사갈등 종료			군사 행동(갈등 수준)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러 시 아 우 크 라 이 나	우 크 라 이 나	1994	4	8	1994	4	11	17. Seizure (4)
		1996	3	24	1996	3	24	7. Show of troops (3)
		2005	3	23	2005	3	23	14. Border violation (4)
		2008	4	15	2008	4	15	8. Show of ships (3)
		2013	7	18	2013	7	18	19. Raid (4)
		2014	4	2	2014	12	31	19. Raid (4)
		2014	2	24	2014	9	18	16. Occupation of territory (4)

35) "International Trade 1870-2014 (v4.0)", 『Correlates of War』, <https://correlatesofwar.org/data-sets/bilateral-trade/>(검색일: 2023.12.04).

36) "Dyadic MID Data 4.02", 『Correlates of War』, <https://correlatesofwar.org/data-sets/mids/>(검색일: 2023.12.04).

국가	군사갈등 시작			군사갈등 종료			군사 행동(갈등 수준)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우 크 라 이 나	러 시 아	1994	4	8	1994	4	11	17. Seizure (4)
		1996	3	24	1996	3	24	7. Show of troops (3)
		2005	3	23	2005	3	23	14. Border violation (4)
		2008	4	15	2008	4	15	8. Show of ships (3)
		2013	7	18	2013	7	18	19. Raid (4)
		2014	4	2	2014	12	31	19. Raid (4)
		2014	2	24	2014	9	18	16. Occupation of territory (4)

철강은 톤(ton) 단위로 측정되어 집계되었기 때문에 다른 값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1인당 GDP(로그)는 최소값 6.522는 우크라이나, 최대값 9.628는 러시아를 의미한다. 로그를 취했음에도 두 국가 간의 1인당 GDP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의 2000년도 1인당 GDP는 680달러로 최소값을 기록했으며, 2013년 3,950달러로 최대값을 기록했다. 약 10여년 만에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이 약 5배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2000년도 1인당 GDP는 1710달러로 최소값을 기록했으며, 2013년 15,190달러로 최대값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1인당 GDP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록한 연도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은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후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경제 개혁, 외국 투자 증가, 세계 시장으로의 통합 등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변화들이 GDP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3년에 기록된 최대값은 이러한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에너지 가격과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정치적 안정성, 경제 정책, 국제 관계 등 다양한 내/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가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군사갈등과 교역 상관관계 결과 변수 간에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 국력과 교역 -0.711 , 1인당 GDP와 교역 -0.756 , 철강과 교역 -0.837 , 철강과 1인당 GDP 0.909 로 확인됐다. 이 변수들은 교역과 상관성이 높아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다중회귀 분석 시 변수들의 영향력을 정확히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다중공선성(VIF) 검사와 이분산성 검정(Breusch-Pagan/Cook-Weisberg test for heteroskedasticity)을 실시했다.

〈표 3〉 군사갈등과 교역 상관관계

	교역(로그)	군사갈등	군사갈등(t-1)	상대적 국력	1인당 gdp(로그)	철강
교역(로그)	1					
군사갈등	-0.033	1				
군사갈등(t-1)	-0.036	-0.067	1			
상대적 국력	-0.711***	-0.040	0.007	1		
1인당 gdp(로그)	-0.756***	0.212	0.095	0.253	1	
철강	-0.837***	0.081	-0.010	0.401*	0.909***	1

〈표 4〉 군사갈등과 교역 변수 검정은 다중공선성(VIF)과 이분산성 검정(Breusch-Pagan /Cook-Weisberg test for heteroskedasticity)을 통해서 변수 간에 상관성으로 인한 회귀 계수의 분산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했다. 다중공선성 검사에서는 모든 변수가 10 이하에 평균값은 3.9로 낮게 나타났다. 변수에 잔차의 분산이 체계적인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분산성을 검정을 실시했다. 이분산성 검정은 귀무가설이 동분산을 가정하고 있는데, p값이 검정 기준 값인 0.05 이상이기 때문에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즉,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4〉 군사갈등과 교역 변수 다중공선성과 이분산성 검정

교역(로그)		
VIF (다중공선성)	철강	8.17
	1인당 gdp(로그)	7.68
	상대적 국력	1.39
	군사갈등	1.17
	군사갈등(t-1)	1.1
Mean VIF		3.9
Breusch-Pagan/Cook-Weisberg test for heteroskedasticity		
chi2(1)		1.93
Prob>chi2		0.1643

본 연구는 국가의 현상이나 특성이 시간 순으로 기록된 시계열데이터(time-series data)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국가의 현상이나 특성이 모여 있는 횡단면데이터(cross-sectional data)인 패널데이터(panel data)로 구성되어 있다. 패널 데이터의 특성상 시간

적인 순서에 따라 오차항에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간에 대한 고정효과를 통해서 이를 통제하여 분석한다.

2. 실증 분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간의 군사갈등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군사갈등이 증가하면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 5>.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무역 경로가 차단되고, 투자가 줄어들며,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가 하락한다. 군사갈등은 또한 경제력을 국방력 강화에 더 많이 할당하게 하면서 다른 중요한 경제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군사갈등 변수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살펴보면, 2000년대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갈등은 2005년도와 2008년도에 두 번 발생했다.³⁷⁾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두 국가 간의 교역은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5년도에 국경선에서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 이후 교역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08년도에는 해양에서 군사적인 갈등이 발생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다시 교역이 증가했지만, 2011년도 이후부터 교역이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2014년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점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두 국가 간의 관계는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다. 다른 시기보다 군사적인 갈등 기간도 6개월 이상 발생하면서 긴장의 수위가 높았다. 결국, 2014년도 크림 반도 갈등은 양국 간의 정치적인 긴장감과 군사적인 위협 수준을 높였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로 러시아의 정치적인 개입이다.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했다. 러시아는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크림 반도의 러시아계 인구를 보호하고 그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정치적 긴장과 군사적 충돌이다. 크림의 러시아 병력 점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정치적 긴장과 군사적 충돌을 초래했다. 셋째, 러시아의 군사력이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이다.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군사력이 앞서는 국가가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군사력이 높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쟁의 피해도 상대적으로 낮다.³⁸⁾

37) 군사갈등 연도별 발생과 관련된 자료는 <표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갈등(1992~2014)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8) 이재철,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 분쟁의 상관관계: 경제적 상호의존의 측정 문제”, 『國際政治論叢』, 제

군사력에서 절대적으로 앞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침공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014년 크림 반도 갈등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지정학적인 대결로 이어지게 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교역 비중을 줄이고, 유럽연합과의 교역이 늘어나는 등 교역 파트너를 다양화하는 움직임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교역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군사적인 갈등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군사갈등이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안정성과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평화와 안정이 경제적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표 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갈등과 교역 결과(1994~2014)

변수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		
군사갈등	-0.060 (0.095)	-0.164* (0.094)	-0.087* (0.045)
군사갈등(t-1)		-0.079 (2.708)	-0.147*** (0.044)
상대적 국력			32.957*** (4.357)
철강			-0.732*** (0.133)
1인당 GDP(로그)			0.294*** (0.070)
상수	2.687*** (0.058)	2.708*** (0.053)	7.385*** (1.096)
N	42	40	40
rho	0.940	0.996	0.996
F test	323.76***	202.93***	202.93***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값이며,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을 나타냄

IV. 결론

세계 정치에서 상호 의존성은 국가들 또는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탈냉전 이후 지역화와 세계화 현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국가 간에도 교역을 통한 상호의존을 형성하게 했다.

우크라이나는 자원이 풍부하고 옛 소비에트 연방 국가라는 점에서 러시아와의 교역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두 국가의 교역을 통한 협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 강대국 간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충돌 러시아는 NATO의 동진에 대해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으며 옛 소비에트 국가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이 대외적인 입지를 약화 시킨다고 보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NATO의 가입 중단과 돈바스 지역 등에 대한 통치권을 획득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인 갈등도 커졌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갈등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평가가 주는 의미를 살펴보려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갈등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군사갈등이 증가하면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갈등은 자국의 군사비 지출 증가, 인플레이션, 무역 개방성 저해, 에너지 의존도 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역 개방이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사갈등으로 무역 개방이 제한된다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1인당 실질 GDP를 감소시키게 한다.³⁹⁾ 두 국가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군사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더 나은 결정이 될 수 있었다.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무역 경로가 차단되고, 투자가 줄어들며,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가 하락한다는 점에서 두 국가 모두 경제적인 손해와 정치적인 불신감을 높이게 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는 경제 번영과 정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갈등 자료가 2014년도까지 밖에 취합할 수밖에 없어서 최근의 현황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군사갈등에 대한 자료를 논문, 단행본, 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취합하여 연구한다면 현시점에 맞는 객관적인

39) Camelia Negri and Gheorghita Dincă, *Russia's military conflict against Ukraine and its impact on the European Union's wealth. Can good governance counteract the effects of the war?*, *Frontiers in Environmental Science*, Vol. 11, Jul 2023, p.13.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주변국 간의 전쟁과 경제의 상호인관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다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상원,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 에너지 안보전략”, 『중소연구』, 제31권 2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07.
- 김용환, “러시아의 군사안보전략과 우크라이나”, 『국제지역연구』, 제13권 2호,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 박정호, “흑해 지역 협력의 딜레마: 흑해 지역 협력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 비교”, 『중소연구』, 제36권 2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12.
- 박지원, “서방의 對러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반제재정책: 러시아 상품 공급망 관점의 분석”, 『중소연구』, 제47권 2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22.
- 야마모토 요시노부, 『국제적 상호의존: 국제레짐과 거버넌스의 정치경제학』, 서울: 논형, 2014.
- 윤성욱, “제3기 푸틴 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EU 관계 변화: 협력에서 갈등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7권 4호, 국제지역연구센터, 2014.
- 오종문,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와 군사분쟁의 상호인관성 분석”,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이유신, “2006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분쟁: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인가?”, 『중소연구』, 제31권 1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07.
- 이재철,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 분쟁의 상관관계: 경제적 상호의존의 측정 문제”, 『國際政治論叢』, 제46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 이종문,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경제의 충격”, 『슬라브학보』, 제38권 4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23.
- 장덕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중 관계의 전개”, 『중소연구』, 제47권 2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23.
- 정은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경제와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6권 3호,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23.
- 제성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와 한반도: 세계질서, 안보딜레마, 정체성”, 『슬라브학보』, 제38권 4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23.
- 홍순도, “남중국해에서 또 중국-필리핀 무력 충돌”,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430010017269>(검색일: 2024.05.19).
- 홍완석, “탈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와 유라시아 정치경제안보질서”, 『국제지역연구』, 제11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7.
- 조지프 나이,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과주: 한울아카데미, 2005.
- Braun, Erik and Emese Braun and András Gyimesi and Zita Iloskics and Tamás Sebestyén, *Exposure to trade disruptions in case of the Russia-Ukraine conflict: A product network approach*, World Economy. Vol. 46, Issue 10, Oct 2023.
- Camelia Negri and Gheorghita Dincă, *Russia's military conflict against Ukraine and its impact on the European Union's wealth. Can good governance counteract the effects of the war?*

- Frontiers in Environmental Science, Vol. 11, Jul 2023.
- Erik Braun, Emese Braun, András Gyimesi, Zita Iloskics, Tamás Sebestyén, *Exposure to trade disruptions in case of the Russia-Ukraine conflict: A product network approach*, World Economy, Vol. 46, Issue 10, Oct 2023.
- Goenner, Cullen F., “Simultaneity between Trade and Conflict Endogenous Instruments of Mass Destruc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8, no. 5, 2011.
- Joseph S. Nye, J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HEORY AND HISTOTY 7th Edition*, New York: Pearson Education, 2009.
- Keshk, Omar M. G. and Brian M. Pollins and Rafael Reuveny, “Trade still follows the flag: The Primary of Politics in a Simultaneous Model of Interdependence and Armed Conflict”,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6, no. 44.
- Levy, J. S. and Katherine Barbieri, “Trading with the Enemy During Wartime”, Security Studies, vol. 13, no. 3, 2004.
- Liashok, Ya. O. and K. Ye. Moyseienko, *Dynamics of bilateral investments of Ukraine and Russian Federation: before and after the beginning of the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 Polissia: Scientific bulletin*, Vol. 13, Issue 1, Jan 2023.
-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Glenview, IL: Pearson, 2011.
- “Dyadic MID Data 4.02”, 『Correlates of War』, <https://correlatesofwar.org/data-sets/mids/>(검색일: 2023.12.04).
- “International Trade 1870–2014 (v4.0)”, 『Correlates of War』, <https://correlatesofwar.org/data-sets/bilateral-trade/>(검색일: 2023.12.04).
-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v6.0)”, 『Correlates of War』, <https://correlatesofwar.org/data-sets/national-material-capabilities/>(검색일: 2023.12.04).
- KOSIS, “1인당 국민총소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902&conn_path=I3(검색일: 2023.12.04).

【 Abstract 】

The Impact of the Military Conflict in Russia and Ukraine on Trade

Lee, Gu · Oh, Jong-Moon · Cho, Kun-Shik

Russia and Ukraine have been important economic partners for each other, but the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led to a significant decline in trade. In particular, the annexation of Crimea in 2014 and the military conflict in the east of Ukraine have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study analyzes how the military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has actually affected trade.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military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trade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show that trade decreases when the military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increases. The military threats between Russia and Ukraine have escalated into a war. The empirical analysis confirms that peace and stability is a condition for economic prosperity, as higher levels of military ten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lead to a decrease in trade, which hinders the potential for economic growth. Increased military tension between Russia and Ukraine causes economic damage and increased political distrust in both countries as trade routes are blocked, investment is reduced, and uncertainty increases, reducing business and consumer confidence. Peace in Russia and Ukraine can contribute to economic prosperity and political stability. There are economic benefits to reducing military conflict.

Key Words : Russia, Ukraine, trade, military conflict, peace

• 논문투고일 : 2024년 4월 30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4년 5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5월 20일